

성서 기본 지식

D.HEASTER 著
盧 賢 基 譯

基督教 教理 學習
教科書

학습 6

하나님과 죄악

韓國 聖書 研究院 發行

www.korbible.net

학습 6: 하나님과 죄악

6.1 하나님과 죄악

6.2 마귀와 사단

6.3 귀신(鬼神)

변론 17: 주술사

반론 18: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

변론 19: 루시퍼 (Lucifer)

변론 20: 예수가 받은 시험

변론 21: “하늘에서 전쟁 ”

6.1 하나님과 죄악

세상의 여러 종교와 그리스도교계에 많은 종파들이 세상과 우리 생활에서 문제들을 일으키며, 인간을 범죄케 하는 “마귀(魔鬼-Diabolos)” 또는 “사단(Satan)”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Spiritual Beings-靈物), 또는 “귀신(Daimon-鬼神)”이 있다고 믿는다. 성서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학습 1.4에서 우리는 천사들은 범죄할 수 없는 것을 학습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우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역사하는 어떤 초자연적 존재물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상권(至上權)을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다. 성서에서 마귀와 사단에 관한 바른 인식은 필수적 교리(敎理-Doctrine)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깊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魔鬼)를 멸하였다는 기록을 읽게 된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예수 그리스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血肉)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勢力)을 잡은 자 곧 마귀(魔鬼)를 없이 하려 하심이니라”(히.2:14). 그러므로 마귀에 관하여 바른 지식이 없다면, 예수의 역사(役事)든가 또는 그의 본성(本性-Nature)을 이해할 수가 없다.

세상에서 이른바 ‘그리스도교계’는 대체로 사람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나쁜 것은 ‘마귀’ 또는 ‘사단’에게서 온다는 사상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 이것은 인류에게 옛적부터 있던 사상이 아니다. 그것은 배교(背敎)한 그리스도 교계에(-성서교리를 이탈한 그리스도교계) 한정된 사상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바벨론 사람들은 선과 빛의 선신(善神), 악과 암흑의 악(惡神), 이 두 종류의 신들이 있어 사람들의 분쟁에 관여한다고 믿었다. 바사(페루샤) 나라의 황제 고레스(Cyrus)는 바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야웨라, 나 외에 다른이가 없나니, 나 밖에 하나님이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웨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사.45:5-7,22)고 하셨다. 그 하나님은 평안을 창조하시고 재앙도 창조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재앙의 창시자이시다. 하나님께는 “악”과 “죄”에 관해 차별이 없으시다. 그 악은 사람의 악한 생각에서 생긴 것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의 결과로 세상에 들어 오게 된 것이다(롬.5:12).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고 고레스와 바벨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신(神)”, 또는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낱말, “엘로힘(Elohim)”은 “능력 있는 자” 또는 “힘(-Energy)의 원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고는 능력의 원천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그러므로 성서를 믿는 신자들은 초자연적 “마귀” 또는 “귀신”이 존재한다는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2 하나님과 죄악

하나님: 재앙의 근원(根源)

성서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에 또는 개인에게 “재앙과 질병을” 주신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어떤 도성에 재앙이 임하였는데,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하였다(암.3:6). 예를 들자면, 어떤 도성에 지진이 일어났다면, 대체로 그것은 “마귀”의 장난으로 그 마귀가 재앙을 일으킨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서는 이같이 말한다. “이는 재앙이 야웨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미.1:12). 욥기에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 욥이 세상에서 모든 재물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을 읽게 된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서 “재앙”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 불순종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 욥은 “주신 자도 야웨시요, 취하신 자도 야웨이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욥.1:21). 그는 “야웨”께서는 행복을 주시고 사단은 그것을 빼앗아간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욥.2:10)라고 그 재앙이 온 것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그리고 욥기 끝에는, 욥의 친구들이 “야웨께서 그에게 내린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였다”(욥.42:11; 19:21; 8:4과 비교하라)고 하였다.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에서 겪는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허용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나쁜 것”, 곧 그 재앙의 원천이 되시는 것이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懲戒)하시고, ...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히.12:6-11).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들이 결국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룬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마귀(魔鬼)가 우리를 범죄하게 하며 불의하게 하는 존재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 생각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의의 평강한 열매들을 맺게하시려는” 그의 인도(引導)에 반(反)하는 것이다. 마귀에 관한 일반 사상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별히 심각하게 하는 것은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또는 “저희로 징계를 받아 휘방하지 아니할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고 한 구절들에(고전.5:5; 딤후.1:20) 대한 곡해(曲解)이다. 만일 사단이 실제로 사람들을 범죄케 하며 그들의 영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존재라면, 어찌하여 이 구절들에는 그 사단이 빛의 사자처럼 말하고 있을까? 그 해답은 우리 생활에서 하나의 대적자인 사단 또는 난관이 신자에게 영적 발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얻을 수 있다.

그 “나쁜 것”, 또는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문제들을 제거해 해달라고 하나님께 들이는 기도,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그것들을 보내셨다고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들을 일으키는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악한 존재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영적 발전을 위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

하나님과 죄악 3

다. 또한 우리가 문제들을 일으키는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악한 존재가 있다고 믿는다면, 사람의 불구, 질병, 급사, 또는 재앙은 단지 불행이라고 치부해야 할 것은 아니다. 만일 그 마귀가 어떤 능력이 있는 범죄한 천사라면, 그는 우리 사람보다 강할 것이며, 우리는 그 손에서 놓여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 신자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롬.8:28) 하시는 하나님의 주관아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행운(幸運)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는 것이다.

죄의 기원

죄(罪), 그 악성(惡性)은 우리 각기에게 있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범죄는 우리의 잘못이다. 물론 범죄가 우리의 잘못이라고 믿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 범죄는 마귀가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우리의 죄과를 온전히 마귀에게 돌린다. 아주 큰 악한 행동을 저지른 경우에, 그 범인은 그가 그 때에 마귀에 잡혀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면서 자비를 요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바로 말해서, 그 빈약한 변명은 결코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에게는 형벌이 과해질 것이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롬.6:23), 범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 죄는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범죄한 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마귀의 탓이라면, 공의(公義)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고 그 마귀를 형벌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범죄 때문에 심판 받는 사실은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입증한다. 우리의 범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원칙이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그 마귀, 어떤 특별한 악한 존재(Being) 때문이라는 생각은 범죄의 책임을 다른데로 전가하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에 대하여 성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부정하려는 또 다른 실례이다. 범죄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毀謗)과 교만과 광패(狂悖)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막.7:15-23).

우리 몸밖에 있는 어떤 죄의 존재(Being)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범죄케 한다는 것은 예수의 그 명확한 가르침에 상반되는 것이다. 모든 악한 것은 안에서부터, 사람의 마음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러므로 그 홍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창.8:21)고 말씀하셨다.

성서 기본 지식

4 하나님과 죄악

“오직 각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약.1:14)고 인간이 범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있는 악성(惡性)의 욕심, 소욕에 의해 시험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 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였다(약.4:1). 우리는 각기 그 범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다.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정욕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므로,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장 악한 원수라고 할 수 있다.

로마서의 대부분은 죄와 그 기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에 관해 논하고 있다. 그러나 그곳에 마귀와 사단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것이다. 죄의 기원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문맥에서, 바울은 마귀든가 또는 사단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마귀”는 신약성서에서 어떤 “대적자(對敵者)”라는 한 개념(概念)이다. 만일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있다면, 그는 확실히 구약성서로부터 광범위하게 언급되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는 성서가 유별나게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사사기 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의 기록들은 이스라엘이 큰 죄를 범하였던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범죄케 하는 능력 있는 초자연적 존재물이나 또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로 범죄케 하는 어떤 힘있는 존재가 있다고 그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였다. 그 대신에 그는 그들 자신을 그의 말씀에 적용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나가 그들 자신의 육신적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그들을 권고하였다(신.27:9-10; 수.22:5).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롬.7:18-21)고 한탄하고 있다. 그는 자기를 범죄케 하는 그의 밖에 있을 마귀라고 불리우는 자를 비난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기 안에 자리잡고 있는 그 자신의 악성이 범죄의 원천이라고 하였다.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리하여 그는 영적으로 행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것이 자기 안에 거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사려깊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관해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질 것이다. 바울과 같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개종 후에 그 본성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고, 또는 범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 소위 “복음주의” 운동가들은 그들이 완전히 구원 받아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며, 바울이 그 진술로 보아서(롬.7:15-21), 그는 “구원” 받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한다. 이 구절들에 관해 우리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또 다른 의로운 사람, 다윗이 그의 본성의 죄성이 항상 작용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51:5).

하나님과 죄악 5

성서는 인간의 본성, 그 본질적 악성에 대해서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면 우리의 죄를 책임질 대상을 우리 밖에서 발견하려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같이 말씀하고 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야웨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肺腑)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렘.17:9). 예수는 인간의 본질적 악성에 낙인을 찍어 놓았다(막.7:11). “사람의 자식들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도다”(전.9:3)라는 이 말씀은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는 것을 보다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이유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였다.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무지하게 되어,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과 일치하게, 우리의 범죄를 “육신의 일(work)”이라”(갈.5:19) 하였다. 우리를 범죄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육신이며, 우리 자체와 그 본성인 것이다. 이 구절들의 어느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근원을 마귀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를 그 마귀의 탓이라고 그에게 전과하지 않고 있다. 죄성은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인간 형성의 본질적 부분인 것이다. 죄가 인간 그 자체 밖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성서에 무지한 까닭이다.

6.2 마귀와 사단

성서에는 히브리어 낱말과 헬라 낱말이 번역되지 아니하고 그 본래대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사단’이라는 낱말로 그것은 ‘대적자’, ‘대항하는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낱말인데, 번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 반면에 ‘마귀(魔鬼)’라고 번역된 헬라 낱말, ‘diabolos’는, “마귀(魔鬼)”로 심하게 오역(誤譯)되었다. 그 진의(眞意)는 ‘거짓말 하는 자’, ‘원수’, 또는 ‘참소자(讒訴者)’라는 뜻이다. 우리 인체(人體) 밖에 있는 어떤 영물(靈物)인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범죄케 하는 것으로 믿는다면, 성서에서 이 낱말을 만날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악한 자로 여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낱말의 성서 사용법은 정상적 형용사로 보통사람을 수식하는 것이다. 이 사실로 보아 성서에서 사용된 그 낱말 사단과 마귀는 그 자체로 아주 악한 자나 또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존재물도 아니다.

성서의 낱말 ‘사단’

구약성서에는 “야웨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히브리어 낱말 사단)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왕상.11:14)는 것과, “하나님께서 또 엘리아달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히브리어 낱말 사단)이 되게 하시니라”(왕상.11:23)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

6 하나님과 죄악

연적 인격자 또는 천사를 솔로몬의 사단/대적자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는 보통 사람을 일으켰던 것이다. 또 다른 실례가 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단념시키려는 베드로의 시도가 있었다(마.16:22,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그를 꾸짖었다. 이처럼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사단이라는 이 명칭으로 그를 불렀을 때에 천사나 또는 어떤 괴물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줄 확연히 알게 될 것이다.

사단(satan)이라는 낱말이 대적자(對敵者)를 의미하는고로, 성서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할것 없이, 하나님에게 조차도 사단이라고 사용하고 있다. 본래 그 낱말 자체에 반드시 죄인을 가리켜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의 죄성이 우리의 가장 큰 사단 또는 대적인 사실인 반면에, 세상 용어에서는 대체로 그것이 죄와 관련된 것들에 적용되고 있는 낱말인 탓에 그것은 죄인이라는 함축성이 있게 되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사단이 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시련들을 주시든가, 또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릇된 행동 과정을 막고 서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실은 그가 죄인인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모든 복음서에 동일한 사건들이 다른 언어 구사 사용법으로 기록된 것과 같이, 사무엘서와 역대기에는 동일한 사건이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무엘은 “야웨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선동하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삼하.24:1)고 기록하였고, 역대상에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사단)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시니라”고 기록되었다(대상.21:1). 한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고, 다른 구절에서는 사단이 그를 격동시킨 것이다.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단 또는 대적자로 행동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욥에게도 그의 생활에 시련을 주어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殘酷)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Thou opposest thyself against me),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엎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중(大風中)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시,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定)한 집으로 끌어 가시리이다”(욥.30:21-23) 라고, 욥이 하나님께 항의하였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 당신이 내게 사단으로서 행하신다고 말하는 것이다.

성서의 낱말 ‘마귀’

‘마귀(魔鬼)’란 낱말도 그와 같은 것이다. 예수의 말씀에도 그러한 것이 있다. “내가 너희 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인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가롯인 유다는 보통 사람이었지, 어떤 초자연적 괴물(怪物), 또는 이룬바, 어떤 ‘영물(靈物)’이 아니었다. 여

하나님과 죄악 7

기서 ‘마귀’라고 한 것은 단순히 악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다. 데모데서에는 또 다른 실례가 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딤후.3:11), 그 ‘참소한다’는 낱말은 헬라어 ‘diabolos’로 다른 곳에는 ‘마귀’라고 번역되어 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도 “교회의 늙은 여자들은 참소(마귀)하지 말게 하라”(딤후.2:3)고 하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곳도 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참소하기를 좋아한다”(딤후.3:1-3).

이것은 그들이 어떤 초자연적 존재물(Spiritual Being)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그런 자들은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으로서 독자는 성서에 사단과 마귀의 낱말이 그 타락한 천사든가 또는 우리 마음 밖에 있는 어떤 악한 존재가 아님을 확실히 알았을 것이다.

죄, 사단 그리고 마귀

사단과 마귀라는 낱말은 학습 6.1에서 연구해 본바, 그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뿐이다. 이것이 사단과 마귀에 대한 주된 표현이다. 또한 마귀는 우리의 원수, 중상자 등등으로 의인화(擬人化)되기도 하였다. 우리의 육신성은 실제로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이다. 그 마귀와 우리의 악의 소욕,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결합은 다음의 구절들로 뚜렷하게 명시되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려 함이니라”(히.2:14). 여기서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죄의 삯은 사망이라”(롬. 6:23)고 하였다. 그러므로 죄는 마귀에 해당하는 낱말이다. 그와 동일하게 야고보는 우리의 악한 정욕이 우리를 시험하며, 죄로 이끌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다(약.1:14). 그러나 바울은 그 마귀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히.2:14) 하였다. 그 구절에서 예수는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간 본성을 가졌었다고 하였다. 이것을 롬.8:3과 대조해 보자: “하나님은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sinful-우리 인간의 본성)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마귀가 다른 아닌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진 죄성 곧 죄 있는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께서 바로 우리와 한가지로 시험 받으셨던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귀에 관한 낱말의 곡해는 예수의 본성과 그의 사역(work)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게 한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 -그의 안에 있는 마귀를 가졌었기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히.2:14-18; 4:15). 예수께서 그의 본성의 정욕, - 성서의 마귀를 극복하셨으므로, 그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할 수 있었던 것이다(히.2:14). 만일 마귀가 인격적 존재라면, 예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제사로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나타나셨다”(히.9:26) 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 그 자신 안에 있는 마귀를 멸하였다는 선언이다(히.2:14). 예수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 곧 “죄의 몸”(롬.6:6), 즉 우리 몸에 나타나나고 있는 그 죄를 멸하셨던 것이다.

8 하나님과 죄악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요일.3:8). 범죄는 우리의 악한 정욕(약.1:14,15), 곧 성서에서 마귀라고 불리우는 자를 내버려 둔 결과에서 온다. “이 목적을 위하여(For this purpose)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요일.3:8). 마귀는 우리의 악한 정욕을 가리키는 것이다. 바르게 말하면, 우리의 악한 정욕, 즉 그것의 발전 결과는 죄인 것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확인하였다. “그가(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라”(요일.3:5). 이것은 “우리의 죄와 마귀의 일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마귀와 우리의 죄가 결합되어 있는 또 다른 실례가 있다(행.5:3).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였느냐?”. 그리고 그 4절에는 베드로가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고 하였다.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악을 품는 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지는 것과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다. 우리가 마음에 악한 계획 따위, 생각을 품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마귀의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면, 그것은 그녀의 밖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녀의 안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그것과 동일한 비유를 인용하여, 우리의 정욕이 잉태되어, 죄를 낳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약.1:14,15) 묘사하고 있다. 구약성서에는 악한 사람을 ‘사단’과 같은 것으로 예시하였다. “악인으로 저를 제어(制馭)하게 하시며, 대적(對敵- 사단)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시.109:6). -대적(對敵-사단)으로 오른편에 서게 한다는 것은 고소자(告訴者)로 하여금 재판장 앞에 서게 한다는 것이다(시.110:1과 비교하라).

의인화(擬人化)

그렇지만,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이치에 맞는 질문을 할 것이다. 성서는 ‘그 마귀를 사람에게 말하듯 인칭(人稱)으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 그것은 사실이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라”고 말하고 있다(히.2:14). 성서는 조금 읽어봐도, 추상적 생각을 마치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사용한 곳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지혜를” 한 여인으로 말하고 있고(잠.9:1), “죄를” 그 고용주에게 사망을 지불해야 할 자로 말하고 있다(롬.6:23에). 이 특징에 관해서는 변론 5에서 더욱 상세하게 논하였다. 우리의 “마귀(diabolos)”는 자주 우리의 악한 정욕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어떤 추상적인 마귀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악한 정욕은 사람과 별개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마귀를 의인화(擬人化)하여 부르는 것이다. 죄를 자주 주인으로 의인화하여 사용하였다(롬.5:21; 6:6,17; 7:3). 그러므로 마귀는 또한 죄로 여기고 있으므로, 그것을 의인화하여 사용한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같은 식으로, 바울은 우리의 육신에, 마치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두가지 존재물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롬.7:15-21). 영의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은 육신의 사람, 곧 그 마귀이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이 있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다. 우리 본성인 죄의 부분을 “악한 자”라(마.6:13)고 마귀를 의인화하여 말한 것이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과 죄악 9

그의 “악한 자”, 그 자신이 “악한 자”, 또는 “마귀”로 여기고, 그 “악한 자”를, “악한 사람으로” 번역해(고전.5:13) 말하고 있다.

세상 정권은 마귀와 사단이다

마귀와 사단이란 낱말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악한 죄의 세상 제도를 묘사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사회 정치적 사이비 종교, 성직자 제도에 마귀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신약성서에서 마귀와 사단은 자주 유대와 로마 제국의 정치적, 사회적 세력에 적용하였다. 우리는 그 마귀가 신자들을 감옥에 던진다고 한 것을 읽게 되는데(계.2:10), 그것은 로마 당국자가 신자들을 감옥에 감금한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문장의 문맥에서, 우리는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위(位) 또는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의 식민령 버가모에 있는 총독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곳에 또한 한 그룹의 신자가 있었다. 이른바 그 사단이 존재한다면, 사단이 버가모 도성에 보좌를 차리고 그 곳에 앉아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개인적 범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요일.3:4). 그러나 하나님께 대항하는 정치적 사회적 세력으로서 집합적으로 표현된 죄는 개인의 것보다 더욱 큰 세력이다. 하나의 세력 있는 존재물로서 의인화된 이 집합적 세력을 때때로 마귀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란과 이슬람 세력은 미 합중국을 “큰 사단”, 즉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을 대항하고 있는 대적자로 부르고 있다. 이것은 성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마귀와 사단이라는 낱말의 용법이다.

결론으로 이 주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일반 그리스도교의 신앙으로 되어 있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몇구절의 성구 위에 중대한 교리를 세우지 말고, 성서 전체에서 취합하여 체계화한 교리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학습6.1과의 이 부분은 기도하면서 재독하기를 바란다. 마귀와 사단에 관한 모든 성구에 합당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개요를 말한 이 교리의 입장에 따르면 독자에게 말하고 싶은 뿐이다. 그 낱말은 보통 형용사로, 또는 어떤 곳에는 우리 본성에서 발견되는 죄로 사용되었다. 마귀에 관한 일반의 사상을 뒷받침하는데 인용되는 여러 구절의 오해를 본 학습에 뒤따르는 변론에서 밝히고자 한다.

우리의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들은 그들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바란다:

(1) 죄가 어떤 인격자인가? 분명히 그렇지 않다. (2) 사단이라는 낱말은 단지 형용사로 사용되었는가? 그렇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죄를 우리의 원수/사단으로 의인화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 사도 요한의 서신들과 복음서에는 자주 이 세상을 의인화하여 말하였다. 그 죄성을 사단이나 또는 마귀라는 의인화한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 어떤 잘못이 있는가?

10 하나님과 죄악

6.3 귀신(鬼神)

이전 두 학습에서 우리는 그 마귀와 사단을 인격적 존재라든가 또는 어떤 괴물로 믿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는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그 마귀의 종들로서 돼있는 귀신들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신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줄 알고, 마귀와 그의 귀신들은 악한 것만 주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줄 알고 있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힘의 원천이며(학습 6.1을 보라),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선한 것과 악한 것 모두를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다:-

-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사.45:7).
- “이는 재앙이 야웨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미.1:12).
- “야웨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암.3:6).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마귀든가 사단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의 좋은 것들을 많이 잃었던 자이나, 그는 “이 귀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빼앗아 갔구나”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말한 것을 들어보자:-

- “내가 모테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가올지라. 주신 자도 야웨시요, 취하신 자도 야웨시오니, 야웨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1:21),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욥.2:10).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의 성품을 발전시키며 우리를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줄 확신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 죄악 11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주께서 징계하시고(귀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는 그 징계를 견디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접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어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아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히.12:5-8).

하나님은 모든 힘의 원천

하나님은 모든 힘 또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 “나는 야웨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하나님이(하나님은 히브리말 “능력자”를 의미한다) 없느니라”(사.45:5).
- “나 외에 하나님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하나님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사.44:8).
- “야웨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신.4:35).

이와 같은 구절들은 성서 전체에 자주 나타난다. 하나님만이 모든 힘의 원천이므로, 다른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질투하시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출.20:5; 신.4:24).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에 대하여,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능력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실제로는 주 외에 다른 신들, 비록 그들이 주 만큼은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들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는 질투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귀신이나 또는 마귀가 하나님과 공존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이유이다. 이스라엘이 오해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구약성서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신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것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귀신들이” 옛날에 이스라엘이 믿었던 거짓 신들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귀신은 우상숭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우상숭배 또는 그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설명하였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귀신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신들인 줄로 믿고 있었다. 그들은 우상으로서 귀신들의 모델을 만들고, 그들에게 예배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귀신”과 “우상”이라는 낱말을 교체하여 사용하였던 것이다:-

12 하나님과 죄악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밋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전.10:20,28). 그러므로 우상과 귀신은 실제로 같은 것이다. 바울이 “귀신(우상)에게 제사한 것이요, 하나님께 하신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에 주목하라. 귀신은 실제로 아무 능력이 없고, 하나님도 아니다. 그 점을 납득하게 하였다(고전.8:4):-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귀신)은 세상에 아무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 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이나 귀신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세상에는 참 하나님, 또는 힘있는 자가 하나 밖에 없다. 바울은 그 5,6절에서 계속 말하였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신약시대 사람들은 우상 또는 귀신을 ‘신(神)’으로 믿었던 것을 알게 될 것이다(행.17:16-18). 이것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그곳은 “도성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다. 그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들은 후에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귀신들) 전하는 사람인가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 이라”.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 설명해준 예수와 그의 부활이 새로운 귀신 또는 우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 장의 나머지를 읽는다면, 바울이 계속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친 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 22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를 보니, 범사에 미신이 많도다” 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귀신이나, 또는 우상에게 섬기듯 하는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하나님만이 힘의 원천인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귀신 안에 있지 않다면, 이 우주에는 또 다른 힘의 원천이 없기 때문에 귀신은 어떤 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귀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구약성서의 귀신은 우상

구약성서로 돌아가서 보면, “귀신”이 우상과 같다는 것을 더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 신명기에는 정신병은 우상/귀신 예배에 대한 형벌의 하나라고 하였다(신.28:22-28,59-61). 이것은 귀신이 신약성서에서 정신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귀신이라는 낱말은 죄가 아니고,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주목하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질투나, 살인의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 것을 읽지 못한다. 성서에는 또한 귀신이 질병을 일으켰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귀신/질병에 들

하나님과 죄악 13

렸다고 말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구약성서 헬라어 역본에는 “우상에 대하여” “귀신”이라는 낱말을 사용하였다. 구약성서는 그것을 사신(邪神), 또는 “귀신”이라고 번역되었다(신.32:17과 시.106:37). 시편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우상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시.106:36-39) 묘사하고 있다:-

- “저희가(이스라엘) 그 우상을 섬기므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고도다. 저희가 그 자녀도 귀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하므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귀신의 다른 명칭은 분명히 우상이다. 그 귀신을 숭배하는 것은 사람의 상상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안하고 만든 작품을 예배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창작한 우상들은 “그들의 작품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든 것들 즉 그들의 작품들을 신으로 믿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귀신들을 믿을 때에 진노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들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이라...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야웨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한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無信)한 자녀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쏟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신.32:15-24).

하나님께서 귀신들을 우상으로 그가 가증히 여기는 것으로 묘사하였으며,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그것을 믿는 것은 허무한 것이라고 하였다. 귀신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과 악한 것, 모두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아니하다. 악한 것들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취하여 가시기도 하며, 또는 그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은총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다.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해가 시든가 또는 우리에게 은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신약성서의 귀신들

당신은 “귀신들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는 신약성서의 모든 구절을 어떻게

14 하나님과 죄악

이해하고 있는가?” 하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성서는 그 자체에 모순이 전혀 없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가 모든 힘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작은 신들, -귀신들이 우리에게 문제들을 일으킨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구약성서에는 “귀신들이라”는 낱말이 단지 네번 밖에 쓰여지지 아니하였으며, 그것들은 모두 우상 숭배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신약성서 복음서에는 여러번 나타난다. 그것은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어떤 원인을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은 귀신들이 일으키는줄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던 그 관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실제로 귀신들이 존재하며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문제들을 일으키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하여 구약성서에 기록한 것을 더 많이 읽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구약성서의 내용을 읽어보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다.

신약에서 사용된 낱말 귀신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것은 정신 질병, 또는 당시에 원인을 알지 못하는 질병을 치유하였다는 것이다. 1세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은 귀신이라는 상상적 존재물의 탓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의 문화나 의학 수준은 정신 질환에 대해서 알 수 없었으므로, 그 환자가 귀신에 잡혔다고 하였다. 구약성서 시대에는 정신 이상을 악령 또는 더러운 영이 마음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줄 생각하였다(삿.9:23; 삼상.16:14; 18:10). 신약성서 시대에는 정신 질환에 걸린 자들에게 악령/귀신이 들렸다는 말을 사용하였다. 귀신과 질병에 관련된 것을 다음 구절들에서 가리키고 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 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마.8:16-17). 그러므로 성서에는 인간의 연약함과 질병은 “귀신”과 “악령(惡靈)” 들린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귀신 들려 미쳤다고 하였다. “저가 귀신 들려 미쳤도다”(요.10:20; 7:19-20; 8:52). 그들은 귀신이 미치게 하는 줄 믿고있었다.

질병 치유법

“귀신들린 사람들”을 치유했을 때에 그들은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막.5:15; 눅.8:35). 이것은 “귀신 들렸다는 것이” “바른 정신이 아닌”, 정신 이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 “귀신 들린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그 귀신 들렸다는 정신 질환의 치유의 또 다른 묘사였던 것이다(마.4:24; 12:22; 17:18).

예수께서 그의 사도 70인에게 나가서 “병자들을 고치라”고 분부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였다(눅.10:9).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마.10:17)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귀신들과 그 질병이”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사도들은 때때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였는데 그 실례가 여기에 있다(행.3:6; 9:34를 읽어 보라).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

신약성서에서 사람이 정신병에 걸렸든가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을 가진 자를 귀신 들렸다고 당시의 언어 사용법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 동시대의 로마와 헬라의 문화와 신앙은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와 정신 질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였다. 현재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그 지역에 있던 이교 신앙이 옳다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성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었다. 성서는 그 당시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귀신이 존재하든가 또는 예수께서 그것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영어 사용 지역에서는 간질 환자를 “Lunatic”라고 하는데, 그것은 월신(月神)의 노여움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사람이 밝은 달밤에 걸어 다니면, 달신의 진노를 받아 간질병에 걸린다고 믿어왔다. 우리는 오늘날도 그 말, “Lunatic”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달에 의해서 간질병이 생긴다고 믿지는 아니한다.

예수께서 재림하지 아니 하시고, 만일 2000년 후에 사람들이 그 글을 읽는다면, 우리가 달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고 믿고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나, 그것은 우리가 그 2000년 전 예수께서 말씀 하셨던 것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예수께서 12월 25일에 탄생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그 날을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서 지켜야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있지만, 그날을 말할 때에 본 저자도 역시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그 말을 사용한다. 일주 동안의 요일(曜日)의 명칭은 우상 숭배의 이교 사상에서 붙인 것이다. 그 ‘일요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며, 월요일은 달신을 숭배하는 날이다. 우리가 그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이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플루엔자’(Influenza)라는 병명을 오늘날 보통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어로는 어원이 귀신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이다(-influenced by demon). 다니엘이 ‘벨사살’이라고 명명될 때에, 그 이름은 이교의 신을 반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단.4:19). 그러나 그 낱말이 가지는 의미와는 무관하게 붙였던 것이다. 영어로는 카톨릭교 교황을 보통 ‘Pope’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아버지 ‘Father’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릇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불행하게 된다는 미신적 신화가 있었다. 그 때에 일반화되었던 그 사상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설득하

16 하나님과 죄악

시는 것을 보아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나 주 야웨가 말하노라.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너는 (너희 땅) 사람을 삼키는 자요,네 나라 백성을 제하는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야웨가 말하노라”(겔.36:13,14).바다는 땅을 삼켜 버리려고 하는 거대한 괴물이라고 믿고 있던 일반화 된 이교 사상이 있었다.이것이 분명히 사실이 아니지만, 성서는 그대로 그 말을 사용하고 있다.그것은 독자가 그 사상을 파악하여 그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주 그 말을 이용하였다(욥.7:12;암.9:3;렐.5:22; 시.89:9; 함.3:10; 마.14:24; 막.4:30 원어를 참조하라).앗수리아의 신하는 이 거대한 괴물을 “라함”이라고 불렀으며,애굽에서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그 거대한 괴물,“라함”이라고 하였다(사.51:9).

성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그것이 씌어질 당시의 시류(時流)인 그 이교 영향들을 조금이라도 반영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하나님께서 모든 힘의 궁극적 원천인 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당시의 신앙을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그는 바다의 그 괴물을 관할하시는 분이시므로,그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었다.그렇게 하므로,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릇된 그 백성의 신앙을 바로 잡았던 것이다.그 그릇된 신앙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곧 악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그런 의미에서,성서는 바다의 거대한 괴물이 삼키려고 한다든가,또는 바다가 하나의 괴물이라는 세상의 어리석은 신앙들을 무너뜨리려 한 것이지 그것들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실례는 “꼬부라진 뱀으로” 그것을 번개와 폭풍우로 묘사하였다(욥.26:13; 사.17:1).이것은 번개와 무서운 구름의 형성이 실제로 거대한 뱀의 환상이라는 당시의 이교 신앙을 비유한 것이다.그 구절들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밝히든가,또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하고,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관할하신다고 가리켰던 것이다.귀신을 믿는 신앙이 팽배해있는데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도 이것과 매우 흡사하였다.그의 기적들을 일으킨 힘은 귀신이라고 불리우는 미신에 속박되지 않은 절대자 하나님의 힘이라고 과시하여 그들의 귀신 믿는 신앙을 무너뜨렸다.이와 같은 존재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귀신에 관한 신약성서 기록들을 믿는 자들은 바다가 참으로 하나의 괴물이며,그리고 번개는 실제로 큰 꼬부라진 뱀이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할것이다.성서가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당시의 이교 신앙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인식해서는 안된다.우리는 그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언어를 가리킨 적이 있다.학습6.1과 6.2에서 고찰했던바,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기본 진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서는 그것들을 이용하고 있다.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들을 주시지만 범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므로,죄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힘의 크심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인식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소위 고등비평가들이 성서의 언어와 신앙과 당시의 문화 개념에서 연결 고리들을 찾으려고 영감으로 기록된 성서를 계속 발굴하며 검토하고 있다.성서 기록이 그 지역 신앙이 언급되고 있는 언어로

하나님과 죄악 17

씩어졌다는 것을 진정 인식하게 된다면, 선지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신선하게 하는 그 영감된 말씀에서, 참되신 하나님 아웨께서 이교의 하찮은 신앙 대상보다 훨씬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신약성서에는 당시의 사용하던 이치에 맞지 않는 언어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이제 그 실례들을 생각해보겠다:-

-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힘으로 기적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마.12:27)고 반문하였다. 구약성서에 그 바알세불이 불레셋의 신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왕하.1:2). 예수께서는 ‘보라, 왕하.1:2에 기록된 바알세불은 신이 아니니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비난은 사실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다. 그는 자기가 전했던 사람들에게 그의 메시지를 알게 하는데만 관심이 있었던 까닭에, 마치 바알세불이 존재하는 것같이 말하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예수께서 ‘그것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말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대신 말한 것이다. 그는 당시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다.

-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던 누가의 말이 기록되었다(행.16:16-18): “점하는 피돈(Python)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Diaglott 역본 주에는 그것이 설명되어 있는바, 피돈(Python)은 1세기에 아폴로(Apolo) 신과 함께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일반이 믿고 있던 거짓 신의 이름이었다고 하였다). 피돈 신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누가가 “피돈 신 들린 여자라”고 말한 것은, 말이 그렇지, 실제로 존재도 하지 않는 거짓 신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께서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한 것은, 말이 그렇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질병에 대하여 당시에 상용하던 말투로 치유했다는 것이다.

- 예수께서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의롭다고 믿고 있는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눅.5:32). 예수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투로 그들에게 말한 것이지만, 그것은 전문어로 말하자면, 그가 부적절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복음에는 예수께서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그에게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종이 사용한 그릇된 말을 고치지 아니하였다(눅.19:20-23).

- 성서에는 자주 해가 뜨고, 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로서 과학적으로는 정확한 말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질병에 걸린 것을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전문적 용어로는 부정확한 말이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속

18 하나님과 죄악

였다고 말하고 있다(행.5:3). 이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럴 수는 없었지만, 아나니아가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을 사실로서 말하였다.

- 성서에는 지금은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그 기록될 당시에는 이해할 수 있었던 속어(熟語)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것들은 지금 우리에게 생소하다. 예를 들자면, “가죽을 가죽으로 바꾼다”(욥.2:4)는 것은 옛날 무역의 결제법을 인용하여 말한 것이다. 당시에 남창(男娼)을 “개들이라”고 불렀다(신.23:18). 귀신들이라는 말도 그 한 실례이다.

- 그리스도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불렀었고(마.9:12,13),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줄 아노라”(요.8:37)고 하셨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이 의롭다고 믿지 아니하고, 자주 그들의 그 그릇된 생각을 밝히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유를 들어 말하였다(요.8:39-44). 예수는 사람들의 믿음을 즉각 반론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오해만은 깨닫게 하였다. 이것은 구약성서 시대에 공통적이었던 이교 신앙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접근법이었다. 신약 시대에 귀신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도 그와 마찬가지로였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셨다는 생각에서, 질병이 어떤 다른 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기적들로서 명백하게 설명하였다.

- 바울이 헬라 시인들이 가르쳤던 것을 믿는 자들을 혼동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동요할 수 밖에 없는 그 시인들이 말한 유명한 비성서적 난센스를 인용하였었다(딤후.1:12; 행.17:28). 우리가 제시한 것은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 즉 그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교의 신(神)에게 예배하는 제단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아테네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나무라는 대신에, 그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신이 있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행.17:22,23), 이것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인식한 관점에서 하신 이야기이다.

- 에베소서에는 “공중(空中)에 권세 잡은 자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엡.2:2). 이것은 분명히 조로아스타교(Zoroaster)의 신화 개념이다. 바울은 항상 독자들이 믿었던 종류의 신앙을 인용한 것이다. 바울이 그들은 일찌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아래서 살았던 것을 말하고 있다. 그 같은 구절에서, 바울은 그것은 육신의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思想)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들은 이전에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이교 개념을 믿은 적이 있다. 이제 바울이 지적하는 점은 그들이 이전에 복종하였던 그 권세는 실제로는 그들 자신의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그 이교 사상을 비난하지 않고, 죄에 관한 진리를 가리키면서, 그것을 인용하여 말하였다.

하나님과 죄악 19

- 바울이 로마로 향해하던 중 조난당하여 섬에 상륙하였는데, 독사 한 마리가 나와 바울을 공격하여 그의 손을 물고 늘어진 것을 묘사한 것이 있다(행.28:3-6). 그 주위에 둘러섰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바울이 “살지 못하게 보복을 받은 자”, 살인자라고 단정하였다.그런 그들의 입장은 완전히 그릇된 것이었다.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그 대신에 그는 기적을 행하였다.- 그 독사가 자기를 물지 못하게 떼어 불에 던져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예수는 귀신들에 관하여 많은 말로 그들의 생각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의 기적들로 그릇된 그들의 생각들을 밝혀 놓았다.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두 가지 거짓 진술을 발표하였다(눅.5:21).예수가 신성 모독자인 것과,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하신다는 것이었다.예수는 말로서 그들을 바로 잡으려 하지 아니하고,대신에 그 진술들이 거짓인 것을 입증하는 기적을 행하셨다.

- 예수는 말보다 행동이 더 소리높이 실증할 수 있는 것을 신조로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그는 직접 그릇된 생각을 적발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그는 구원할 수 없는 모세의 율법을 탄핵하지 아니하고,안식일에 질병을 고치는 등등,행동을 보여줌으로 진리를 가르쳤다.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릇된 비난을 받았을 때에,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요.4:22) 중요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충분히 유대인였지만,그것을 부정하지 아니하였다(요.8:48,49; 4:7-9과 비교하라).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긴다”(요.5:18)고 유대인들이 그에게 악평하였을 때에,그는 그것을 부정하는 해명을 하지 아니하고,대신에 그의 기적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그들과 논쟁하였다.그것으로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 것이다.마찬가지로, 예수의 기적들은 귀신들을 믿고 있는 잘못을 가리켰다.베데스다 못가에서 저는 사람을 고쳐준 그리스도의 기적은 유월절에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동(動)하게 하여 병을 낫게 한다는 유대인들의 신화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신화를 부정하는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고,그의 기적이 그 거짓을 밝힌 것이다(요.5:4).

- 베드로 당시에 악한 사람들은 “지옥(Tartarus)에” 던져 넣는다는 말이 있었다.그 지옥(Tartarus)은 당시 지하에 있다고 생각하는 가공의 장소였다.그러나 베드로는 그 관념을 바로 잡아주지 아니하고,도리어 그것을 완전 멸망과 죄에 대한 형벌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그리스도의 게헨나(Gehenna) 라는 낱말의 사용도 그것과 같은 것이다(학습 4.9를 보라).

실제로 귀신이 질병을 일으키는가?

귀신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자마다 그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

20 하나님과 죄악

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이것이 귀신이 일으킨 것인가?” 만일 당신이 악을 행하면서 돌아다니는 작은 신들이라는 귀신에 관한 신약성서의 말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 경우에, 귀신들이 일으킨다는 많은 질병이 약에 의해서 치유되든가 또는 조정되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말라리아 질병을 실례로 들어보자. 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최근까지 말라리아는 귀신들이 일으키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라리아는 키니네든가 또 다른 약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적은 노란색의 알약이 몸에 들어감으로 그 귀신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친다고 할 것인가? 예수께서 고치셨던 질병의 어떤 것, 귀신들린 결과로 묘사된 어떤 질병은 간경련 또는 간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모두는 지금 약으로 치유할 수 있다.

우간다의 캄팔라시 밖에 있는 한 마을에 살고 있는 내 친구 하나가 내게 온 적이 있다. 그는 말라리아 병이 귀신들에 의해 일어나는 줄 믿고 있었던 사람들 중의 하나인데, 한번 약이 그 귀신을 쉽게 처치할 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귀신들을 비난하기를 그쳤다고 한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독한 말라리아(정신 착란을 일으킨다)에 걸렸을 때에는, 아직도 귀신들을 비난하였다. 가까운 도시에서 의사가 와서 그것을 치유하는 말라리아 약을 주었을 때에 그들이 그 귀신들과 싸워야 한다고 하면서 그 약을 거절하였다고 한다. 그 의사는 나중에 돌아와서 말하기를, “나는 그 귀신들을 쫓아버릴 약을 가지고 있소”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 환자는 그 약을 취하여 먹고 나왔다. 그 둘째 알약은 그 첫째 것과 같은 것이었다. 물론 그 의사는 귀신들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마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변론 17: 주술(呪術-witchcraft)

본제는 대부분 주술(呪術)이 일상 생활에 공통적 특징으로 돼있는 아프리카와 기타 지역들에 있는 자들의 필요에 응하여 기록된 것이다. 아프리카의 의사들과 그 밖에 그와 같은 자들이 진리 유지에 모순된 주술을 의지하는 것을 모든 성서 학자가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의사들 보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공도 겸하며, 그들에게 매력적인, 주술사들이 더 값이 싸고 더 많이 수용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 또한 성서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당신이 이 사람들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주술사의 주장

첫째로 이 주술사들의 성공했다는 주장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들의 성공에 대한 주장들에는 많은 과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들의 치유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다. 그들이 정말 성공할 수

하나님과 죄악 21

있다면 병원에서 작업할 것이고 세상에 널리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이 치유한다는 주장의 정확한 상황은 역시 전혀 알려지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과연 개선될 것인가 분명치 않다.

이 유혹에 직면하고 있는 당신은 그들의 능력에 관한 당신의 결정적 증거가 있는가 당신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당신이 제재소 톱에 팔이 잘린 어떤 사람이 주술사에게 가서 완전히 일할 수 있는 새 팔로 고침을 받고 돌아온 것을 보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그들에게 어떤 신뢰를 주기 전에 필요한 종류의 증거이다. 하나님은 더욱 강력한 증거를 말씀하시고 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 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 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신. 13:1-3). 그들이 이적이나 기사를 행하여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교리를 말하지 않는 한 그를 믿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주술사들은 성서에 계시된 그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일들을 분명히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힘 -에너지가 오직 전능하신 야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생각하고(롬. 13:1; 고전. 8:4-6), 그들이 실제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유혹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그들이 문제를 처리한다고 호소하는 유의 사람들이 문제이다. 현대에 와서 사람들은 우리 두뇌의 힘을 1%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거의 다 우리 몸에 실제로 작용시키는 줄 알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혈액 질병 환자가 그들의 혈액이 적절하게 형성되었고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강한 상상력으로도 치유되는 것을 알고 있다. 의사들은 정통적 의학에 의하지 않는 그런 치유가 때로는 일어난다고 시인하고 있다. 그와 유사하게, 마음에 받는 많은 스트레스가 위궤양과 두통을 일으킨다고 한다. 긴장을 완화하든가 또는 어떤 방법의 운동은 그런 통증이 달아나게도 한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 팔이 톱에 잘려버렸다면, 그것은 정신병처럼 회복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주술사들이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가벼운 질병뿐이다. 우리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술사들이 가진 신체의 힘으로 치유하는 줄 생각한다. 절대 그들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에 그들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힘의 원천

하여간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선한 것과 질병과 같은 나쁜 것 모두가 주술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다. 이것은 성서에 공통된 주제이다. 사. 45:5-7; 미. 1:12; 암. 3:6; 출. 4:11; 신. 32:39; 욥. 5:18. 이 모든 구절은 주의하여 재독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우리가 병이 들면, 그 치유를 위하여 관례적 약품의 사용 등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

22 하나님과 죄악

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주술사들에게 가는 것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어두움의 세력’을 주관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힘의 원천이시다. 주술사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힘의 원천인 것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고, 주술사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세력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힘의 원천이시므로, 그가 우리에게 질병도 걸리게 하신다는 것은 능하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며, 그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부당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으나, 또한 그들의 생활에 역사하는 다른 세력이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그들이 우상숭배로 그 세력과 상관했던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쫓아 내버릴만큼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신.32:16-24).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한, 그를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주장은 다른 세력의 존재를 부인하고, 과거에 이스라엘이 했던 것, 주술사의 영향력에서 떠나는 것이다. 기나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슬픈 역사는 “우리의 훈계를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런 세력을 믿는 자들과 단교(斷交)해야 할 것이다.

-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화합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 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고후.6:14-17).

우리가 실제로 저들에게서 따로 있을려고 노력하며 희생한다면, 하나님의 친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 부모도 그의 자녀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는 것은 본능적이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믿는 자녀를 돌보시지 아니하랴? 그들 보다 더할 것이 아닌가!

주술사들이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자를 잃은 어떤 사람이 점쟁이 또는 주술사에게 가서 그 죽은 자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자. 그 점쟁이는 눈을 감고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을 상상해보라고 말할 것이다. 그 방문자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 죽은 자의 사진에 마음을 고정시킬 것이다. 그 때에 그 점쟁이는 그 방문자의 마음을 읽고, 조금 과장되게 실제 있는 상태로 그 죽은 자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하여 점쟁이는 그 죽은 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그 방문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그 때에 방문자가 점쟁이를 믿지 않든가 또는 거절한다면, 아무 결과도 일어나지 아니한다.

애굽의 바로와 바벨론의 느브갓네살의 꿈을 평소대로 해몽해주던 ‘주술사들’은

하나님과 죄악 23

그들의 꿈을 해몽할 수가 없어서, 그 지위가 위협을 받게 된 적이 있었다. 틀림 없이 그들은 어떤 독심술(讀心術- mind-reading)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와 느브갓네살의 생활에 개입하셔서, 인간사에 관련했을 때에는 그 주술사들이 신통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그와 유사하게 발락이 백성에게 저주가 될 것이라고 발람의 힘을 의지하고, 그는 발람의 힘을 알고 있다면서,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앎이니”(민. 22:6) 하고 발람에게 거액의 보상을 제의했었다. 어떤 면에서는 주술사와 같았던 발람 선지자가 정작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에는 이미 그의 평소의 힘은 그를 떠나 있었다. 그런 주술사들이 다른 사람들과 상대할 때에 성공을 거두어 유명한 자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상대할 때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성서의 주술사들

우리가 주술사에게 유혹되어 그에게 도움을 얻으려 간다면, 그것은 그를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뿐, 주술사들을 이용하여 성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마 그들도 우리와 같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 자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어떤 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나 발락, 느브갓네살에 관한 기록을 읽었다면, 주술사들에게 어떤 힘이 있다고 믿고 그들에게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 고찰해본 실례는 주술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나온 신자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신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바울은 주술을 “이단(거짓 교리)”, “음행”, 그리고 “호색(好色)” 등등(갈. 5:19-21)의 범주에 속한 “육신의 일이라”고 딱지를 붙혀 놓았다. 그는 그것을 해명하고 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것과 동등하게 모든 복술자(卜術者), 신접자(神接者), 그리고 그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였다(신. 18:10, 11; 출. 22:18). 주술사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보호 장치가 그들에게 있다고 백성을 가르쳤다. 그 보호를 원하는 자들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술사들과 그들을 이용하는 자들 모두를 죽이라고 한 것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다.

주술사들을 이용하여 행운을 잡으려는 그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생활에 부딪치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을 과연 원하실까?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그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

24 하나님과 죄악

술사들을 저주한 것을 볼 때에, 그 대답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사무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삼상.15:23). 이스라엘이 우상과 마술사들을 믿음으로서 전능하신 자를 격노케 하였던 그런 행동은(신.32:16-19)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주술사들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실천하였다(신.18:9-14). 그러므로 침례를 받고 새 이스라엘이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 힘은 주술사들이 이용하고 있고, 우리는 이용하지 않으니,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주술의 효과가 있다고 믿는 한,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이방 세상에서 빛과 진리와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바뀌려는 어두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한다.

-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영의 거룩하게 함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 받은 교훈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살후.2:10-17).

변론 18: 에덴에서 일어난 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창.3:4-5).

통속적 해석:

많은 사람이 그 뱀을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범죄한 천사라고 잘못 추정하고 있다. 그 천사가 범죄하여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와서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

하게 했다는 것이다.

해설:

1. 그 구절에는 그 “뱀”이 사단이든가 또는 “마귀”였다고 전혀 말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뱀들이 실제로 배로 다니면서 우리와 함께 땅에서 살고 있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뱀이 문자 그대로 동물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것을 달리 추상적으로 믿는 자들은 실제의 뱀을 볼 때마다 “사단” 그 자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2. 뱀은 결코 천사라고 묘사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그 어떤 존재물이 하늘에서 내쫓겨 세상에 내려왔다는 말이 창세기에 전혀 없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4.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롬.6:23). 천사들은 죽을 수가 없다(눅.20:35-36). 그러므로 천사들은 범죄할 수 없는 것이다. 의인의 보상은 다시 죽지 않는 천사와 동등하게 되는 것이다(눅.20:35-36). 만일 천사들이 죽을 수 있다면 의롭게 된 자들 또한 범죄할 수 있고 따라서 죽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실제로 영생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5. 인간의 타락에 관한 창세기의 기록에는 하나님, 아담, 하와 그리고 그 뱀이 연관되어 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언급되지 아니하였다. 뱀 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 바울은 “뱀이 자기 간계(奸計)로 하와를 미혹케 하였다”(고후.11:3)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창.3:14)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사단이 그 뱀을 이용하여 범죄하게 하였다면”,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형벌을 주시지 아니하였겠는가?

6. 아담이 하와에게 죄를 전가하였다: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창.3:12). 하와는 뱀에게 그것을 전가하였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3:13).

7. 오늘날 뱀들은 말을 못하고 또는 에덴 동산의 뱀과 같이 논쟁할 수도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 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a) 나귀가 말을 하고 사람(발람)과 논쟁을 한 적이 있다.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벧후.2:16).

(b) 그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지성적(知性的) 동물이었다(창.3:1). 그에게 내

26 하나님과 죄악

린 저주로 아담과 하와와 대화할 수 있었던 능력을 빼앗겼을 것이다.

8. 하나님께서 뱀을 창조하셨다(창.3:1).“사단”이라고 하는 다른 존재가 뱀이 된 것은 아니다.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한 인격적 존재물이 다른 사람의 속에 들어가 그를 지배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다.그것은 이교 사상이며,성서의 사상은 아니다.뱀이 아담과 하와를 꾀어 범죄하게 한 큰 죄로 인하여,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논쟁하는 자는 죄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롬.5:12).그러므로 뱀은 도덕과는 관계 없는 자이며,그 자신의 생각대로 말한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없었으므로 범죄한 것이 아니다.

어떤 자들은 창세기 3장의 그 뱀은 스랍(seraphim)과 관계되었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뱀(serpent)이라는 보통의 히브리 낱말 그것을 창세기 3장에 사용했으며,스랍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스랍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 낱말은 근본적으로 “불의 요소를” 의미하며 또한 “불뱀으로” 번역되어 있으며(민.21:8),그것이 창세기 3장에 “뱀(serpent)”으로 번역된 것은 아니다. 히브리 낱말 놏(銅)이 창세기 3장의 “뱀”과 같은 어근(語根)에서 온 것이다. 은 죄를 나타내며(삿.16:21; 삼하.3:34; 왕하.25:7; 대하.33:11; 36:6),이처럼 그 뱀은 죄와 관련되어 있으나,범죄한 천사는 아니다.

그 구절의 설명

1. 창세기 초반에 기록된 창조와 타락에 관한 것은 문자 그대로 취급해야 한다고 우리가 가르친 것은 의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그 뱀은 문자 그대로 실제의 뱀이었다”.우리가 오늘날 그 본래의 뱀에게 내린 저주의 성취로 배로 기어다니게 된 뱀을 볼 수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창.3:14).동시에 사람들에게 내린 그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오늘날 일반이 알고 있는 문자 그대로의 그 남녀였던 것을 인식할 수 있다.그러나 우리보다 나은 형태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따라서 그 본래의 뱀은 비록 오늘날의 뱀들보다 더 지성적이었지만,역시 문자 그대로 실제의 동물이었다.

2. 다음의 것들은 창세기의 초반부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자세하게 지적한 것들이다:-

- 예수께서 혼인과 이혼에 관한 근거로서 아담과 하와의 기록에 관하여 말하였다(마.19:5-6).그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라는 암시가 전혀 없다.
-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하와가 그 후이며,아담이 피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피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딤후.2:13-14).

하나님과 죄악 27

이와 같이 바울 역시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읽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케 하였다”(고후.11:3)는 방식으로 그는 중요하게 기록하였다. 여기서 바울이 하와를 꾀 자를 “마귀”라고 언급하지 아니한 것에 주목하라.

- 그 창조와 타락의 기록을 비유적으로 읽어야 하는 다른 어떤 증거가 있는가? 이 땅은 창세기 1장에 의거하면 6일 동안에 창조되었다. 그 날들은 문자 그대로의 24시간을 하루로 하는 날인 것이 다른 날들에 여러가지 것들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그 날들은 1000년씩이 아니다. 아담은 그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으나, 그 일곱째 날 후에 930년을 살고 죽었다(창.5:5). 그 일곱째 날이 1000년간이라면, 아담은 930세에 1000세를 더 산 것이 된다.

- 창조에 관한 날들이 실제로 하루라는 더 많은 증거를 안식일 법에서 발견할 수 있다(출.20:10,11).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육일 동안을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24시간의 하루를 쉬는 것이다. 둘째 날에 만든 초목은 그 여섯째 날에 창조된 벌(蜂) 등등에 의존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의 창조물 간에는 오래 동안의 간격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3. 뱀이 배로 기어다니도록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창 3:14), 그 뱀은 그 이전에는 아마도 발이 있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의 분명한 추리력을 결부시켰던 것을 보면, 비록 그것이 동물이었지만 “야웨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던”(창.3:1) 동물이었므로, 그것은 아마도 사람에게 가까운 동물 형태였을 것이다.

4. 뱀을 간교한 짐승으로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아, 뱀은 그 선악과를 먹었을지도 모른다. 하와가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를 보았다”(창.3:6). 그녀가 생명의 과실을 먹은 결과를 알고 그렇게 해보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하와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것 이전에 아마도 그 뱀과 몇차례의 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 뱀이 하와에게 한 첫째 말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3:1)이다. 이 말 속에 “그 참으로라”는 말은 기록은 안되었지만, 그들이 이미 이전부터 교제가 있었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28 하나님과 죄악

변론 19: 루시퍼(Lucifer)

-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啓明星-Lucifer)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北極)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사.14:12-14).

통속적 해설

그 계명성(루시퍼)은 아담 때에 범죄하여 하늘에서 이 땅으로 추방된 권세 있는 천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해설:

1. 이사야서에는 “마귀”, “사단” 그리고 “천사”라는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아니하였다(사.14장). 또한 그 “계명성(啓明星)- 루시퍼”라는 이 낱말은 성서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2. 이사야 14장에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것을 묘사하고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만일 그렇다면 어찌하여 창세기로부터 3000년을 지나서 그 전에 일어났던 것을 말하고 있겠는가?

3. 그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권세를 잃은 까닭에(5-8절), 그에게는 구더기가 깔려 있고 지렁이가 덮여 있고(11절),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16절)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므로 루시퍼가 지금 세상에서 신자들을 배교(背敎)하게 하고 있는 어떤 영물로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다.

4. 루시퍼가 이미 하늘에 있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13절) 하는 생각을 했으며, 그것으로 인해 형벌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는 분명히 실제의 하늘에 올르고자 한 것이 아니다.

5. 루시퍼는 음부(무덤)에서 썩어지고 있었다. “네 영화가 음부(무덤)에 떨어졌음이며, 너의 수금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11절). 천사는 죽을 수가 없는 것을 생각할 때에(눅.20:35-36), 루시퍼는 천사일 수 없고, 그는 사람인 것이다. 천사는 죽음이 없으므로 몸이 썩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죄악 29

6. 그 13절과 14절은 살후.2:3-4절과 연관되어 있는바, 그것은 “그 죄의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 루시퍼는 천사가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한 해설:

1.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는 바벨론, 두로, 애굽 등등, 여러 나라에 관한 일련의 “경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14:4은 문맥상,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확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라고 시작되는 바벨론에 관한 경고이다. 그러므로 그 예언은 “루시퍼라”고 묘사한 바벨론 왕에 관한 것이다. 그의 권좌에서 추락을 보는 자가,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 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진동시키며, 세계를 황폐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16,17절)라고 한다. 이것은 루시퍼가 분명히 사람인 것을 정의하고 있다.

2. 루시퍼가 사람으로 왕이었던 까닭에,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9-10)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루시퍼는 한 나라의 왕인 것이다.

3. 그 20절에는 루시퍼의 후손이 멸망하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22절에는 바벨론의 후손이 멸망하리라고 하였다. 루시퍼를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4. 이것은 바벨론 왕에 대하여 지은 노래라는 것을(4절) 기억하라. “루시퍼”란 “계명성”, 못별 중에 가장 밝은 별, 셋별을 말한다. 그 지은 노래에서, 이 별은 교만하게도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13절)고 하였다. 이것 때문에, 그 별은 땅으로 쫓겨났다. 그 별은 바벨론 왕을 나타내고 있다. 다니엘서 4장은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성공하게 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웃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가 세운 대제국을 교만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건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22절). 이것 때문에, “그는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 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었다”(33절).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던 자가 발광하는 미치광이로 갑자기 겸손하게 한 극적 사건을 노래지어 부르기를, 새벽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고 하였다. 별들은 권세 있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예를 들면, 창.37:9; 사.13:10 (바벨론 제국 인도자들에 관한 것); 겔.32:7 (애굽의 인도자들에 관한 것); 단.8:10; 그 24절과 비교하라. 하늘에 올랐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는 식으로 성서에서 사용한 관용어(慣用語)는, 교만하게 된 것과 겸손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30 하나님과 죄악

것이다. 욥.20:6; 램.51:53 (바벨론에 대하여); 애.2:1; 마.11:23 (가버나움에 대하여);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5. 그 17절은 루시퍼가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들을 그들의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라고 고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바벨론의 군대의 점령 정책을 묘사한 것으로, -모든 지역을 황폐케 하고(예루살렘에 행했던 것같이), 사로잡은 포로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으로 식민하며(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행했던 것같이), 성읍에 새 건물을 건축하게 하고 그들이 압제했던 여러 나라에서 조공으로 금은을 탈취하였었다. 루시퍼가 다른 나라들의 제왕들 같이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18-19절), 그의 몸이 장사되어야 했던 것으로 보아, 그가 무덤에 장사되었던 여러 제왕 중의 하나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6. 그 12절에는 루시퍼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고 그가 한 나무였던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단.4:8-16과 관련된 것으로, 느브갓네살과 바벨론이 나무였다가 찍혀 땅에 떨어졌다.

7. 바벨론과 앗수르는 때로는 선지자들의 예언에 교체하여 나타난다. 바벨론 왕의 죽음을 말하기를, “내가 앗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밭아래 밟으리니”(25절)라고 말하였다. 사.47장의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나.3:5; 4:18과 습.2:13,15에서는 앗수르에 관한 것으로 반복하여 말하고, 그리고 대하.33:11에서는, 그 말들을 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앗수르 왕이 므낫세를 사로 잡아갔다고 말하고 있다. 암.5:27에서는 이스라엘이 “앗수르”, 즉 “다메섹 밖으로” 사로 잡혀 갔다고 말하고 있으나, 스테반은 이것을 “바벨론 밖이라고” 인용하고 있다(행.7:43). 스.6:1에는 성전 재건에 관한 조서를 내린 사람은 바벨론 왕 다리오라고 묘사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앗수르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다고(스.6:22) 하였다. 이것은 또한번 그 말들을 교체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의 다른 예언들에 따라서, 그 14장의 예언은 그 문맥상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산헤립에 의한 앗수르의 침공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기서 그 25절은 앗수르의 파괴를 묘사하고 있다. 그 13절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앗수르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신들을 위하여 성전 기구들을 약탈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 구절을 이해하기가 아주 쉽다. 일찌기 앗수르 왕, 디글랏-빌렛셀이 아마도 그와 같은 것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대하.28:20,21).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성전과 언약궐의 상징:- 왕상.8:30; 대하.30:27; 시.20:2,6; 11:4; 히.7:26) 올라, 하늘의 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예루살렘- 시.48:1-2) 집회의(성전이 있는 시온산) 산 위에 좌정하리라”(사.14:13).

변론 20: 예수가 받은 시험

“그 때에 예수께서 영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 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마.4:1-11).

통속적 해설:-

그리스도교계는 보통 이 구절들을 “마귀(魔鬼)라”는 초자연적 어떤 영적 존재가 있어 그것이 광야에서 예수께 여러가지 육신적 욕망을 제시하여 그를 시험에 빠들려 범죄케하려고 하였다고 읽고 있다.

해설:

1. 예수께서 “모든 것을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 받은 자라”고 하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약.1:14) 하였다. 우리는 “그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욕, 또는 악한 욕심에 의해 시험 받는 것이며, 예수도 우리 같이 그렇게 시험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악한 존재물이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자극하여 범죄하게 시험한 것이 아니고, 그 범죄의 유혹은 “우리 안에, 육신성에서”(막.7:21) 생기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2. 그 유혹들에 관한 이 문장은 문자 그대로 취급하기는 증거가 너무나 불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순식 간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께 보여주었다고 하였다(마.4:8). 그 곳에는 천하 만국을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산이 없다. 어찌해서 그 높은 산에서 예수로 하여금 장차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와 같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였는가? 이 땅은 구체(球體)이므로, 사람이 세상 모

32 하나님과 죄악

든 부분을 일순간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은 없다.

그 시험에 관하여 마.4장과 눅.4장을 비교해보면, 그 유혹사건 기록은 서로 순서가 다르게 묘사돼 있다. 막.1:13에는 예수께서 “40일간 광야에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받으셨다”고 하였으며, 그 반면에 마.4:2,3에는 “예수께서 40일간 금식하여 주릴 때에 시험하는 자가(사단) 그에게 나아왔다”고 하였다. 성서는 그 자체에 모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일한 시험이 반복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시험이 분명한 그 실례이다. 이 시험들은 예수의 마음 속에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하면 아주 적합할 것이다. 우리 본성에서 볼 때에, 그의 결식(缺食)은 그에게 정신적 육체적 영향을 주어, 그의 마음은 자연히 먹을 것을 상상했을 것이다. 단 며칠의 결식으로 어떤 사람은 정신 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삼상.30:12과 비교). 그와 유사하게 예수께서는 떡과 돌덩이 관계를 언급하셨고(마.7:9), 비록 그가 신속하게 말씀을 상기(想記)하여 정욕을 제어했었지만, 틀림없이 그 고통스러웠던 생각이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아마 복음 저작자들에게 그의 시험의 기록을 말했고, 그가 겪은 바를 절실히 느끼게 하기 위하여, 마 4장과 눅 4장에서 볼 수 있는 그 비유적인 말을 사용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호기심이 많은 것을 생각해볼 때에, 그 마귀가 예수를 광야로 이끌고 다니며, 예루살렘 거리와 성전 꼭대기에 함께 올라가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이야 말로 중대한 것인데, 유명한 유대 역사가 Josephus의 기록에는 이 사건에 관한 것이 전혀 없다. 만일 이 시험들이 그 40일 동안에 여러번 일어났던 것이라면(마태와 누가의 다른 순서로 기록한 것을 보아, 적어도 두번 이상은 있었을 것이다), 그 기간 끝에 예수께서 마귀의 인도로 가까운 산(이 산은 아마도 북쪽에 멀리 있는 헬몬산이었을 것이다) 꼭대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고, 광야로 돌아가서 그 시험을 반복한 것이 아니겠는가?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든 시험은 그가 거기 있었던 40일간이며, 항상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그 마귀는 그 시험들 끝에 그를 떠났다 마.4:11)고 하였다. 만일 예수께서 매일 마귀에게 시험 받았었고, 그 시험들은 광야에서 40일간 동안에 일어났던 것이라면, 예수는 그 광야를 떠나든가 또는 그 높은 산으로 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문자 그대로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그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이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는 실제의 사람이었다면, 어찌하여 예수께서 성구를 이용하여 그를 이기려고 했는가 하는 것이다. 통속적 해설에 따르면 이것은 그 마귀를 떠나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 시험에서 매번 성구를 인용하신 것을 주목하라. 만일 그 마귀가 예수의 마음에 있는 악한 정욕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에는 말씀이 있었고 그 자신 그것을 상기하였을 것이므로 그 정욕을 극복했을 것이 이해가 된다. 시.119:11에는 특별히

하나님과 죄악 33

그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경험을 예언한 것과 관련 된것 같은 말씀이 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수께서 “영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마.4:1)고 하였다. 그를 이끌고 간 것은 그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영이었다(마.3:16).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끌고 가서, 하나님께 반대하는 그 초자연적 존재인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하였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할 것이다.

제시한 해설:-

1.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에, 그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다(마.3:16).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 마자, 그는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이끌어갔다. 그는 돌들을 떼이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상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 시험들은 그의 마음에 휘몰아 쳤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성을 가진 인간성을 아시고 계시는 예수에게 그런 것들을 제시하였다면, 그 시험들은 예수의 마음에서 일어났던 것보다는 덜 간교했을 것이다.

2.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어온 그 자신으로 그 나라를 장악할 수 있다는 그 시험은 그 유혹이 한층 더 강력하였을 것이다. 성구로 가득했던 예수의 마음, 그리고 금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괴롭던 그의 마음 상태는, 그가 처했던 상태에서 쉽게 빠져나올 구실이 되는 성구를 그릇되게 해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높은 산에 섰을 때에 그는 에스겔이 극히 높은 산 위에서 보았던 그 나라와 같은 형상과(겔.40:2), 그리고 요한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던 것을”(계.21:10) 회상(回想)했을 것이다. 예수께서 장차 있을 세상 나라들을 보고(눅.4:5), “그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보았을 것이다”(계.11:15). 아마 그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모세가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그 하나님 나라)을 바라보았던 심정이 생각났을 것이다. 다니엘서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단.4:17, 25, 32; 5:21). 예수는 다른 분이 아닌 오직 야웨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실줄을 아시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악한 괴물이 그 나라를 예수에게 줄 수 있다고 제시하여도, 그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줄 알고 있었기에, 그 시험에 쉽게 빠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자기에게 주시는 것이 그의 기쁨인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 안에 있는 그 “마귀”는 그 나라를 곧 얻을 수 있다고 그에게 제의했을 것이다. 비록 예수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 후에 모든 권세를 받았다(마.28:18).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자기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수 있는 한도까지(요.10:18),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34 하나님과 죄악

(요.5:26,27), 아주 이치에 합당한 판단을 내릴수 있었다.

3. 그는 성서에 능통하였으므로, 광야에서 40일 후에 주저 앉았던 엘리야와 같지 아니했으며(왕상.19:8), 광야에서 40년간 방황 끝에 곧 얻을 수 있었던 그 유업의 땅을 상실했던 모세와 같지 아니하였다.예수는 40일 금식 후에 실패할 수 있었던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모세와 엘리야는 “마귀 때문이 아니고”, 육신의 연약성 때문에 실패하였다.예수를 시험한 것들은 그 동일한 “사단”,또는 대적인 그의 육신의 연약성이었다.

4. “마귀가 예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눅.4:3) 그 시험을 시작하였다.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계속된 시험이었을 것이다.남들은 나를 요셉의 아들(눅.3:23; 요.6:42),또는 사생아로(요.9:29) 여기고, 성전에 기록된 법적 등기는 요셉의 아들(마.1:1,16; 눅.3:23,- 법으로 규정된 자식)로 돼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는 인간의 아버지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불신하든가,또는 그의 본성을 그릇 이해하는 시험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아(빌.2:8),그는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인정하게 하는 암시가 된다.

5. 그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적 교육을 위하여,시행하셨던 것이다.예수께서 악한 정욕에 대하여 자신을 강하게 하려고 인용한 구절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들로서,모두 신명기의 것들이다.예수는그의 경험들과 그들의 것들이 같은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예수는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여 실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그는 그 자신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처지에 들어가서 생각해보고, 그 스스로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시험들을 경험함으로 배워서 그의 교훈으로 하였던 것이다.

신명기 8장	마태/누가 복음 4장
2절	
“네 하나님 야웨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그 때에 예수께서 영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사, 사십일을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예수는 간직한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다 (시.119:11).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웨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는 사십일 금식후 주리셨다”. 그는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만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설하셨다(요.6장). 그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였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것이라”.
5, 6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야웨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야웨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하시는 자식을 징계하시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것을 그의 생활에 반드시 나타내셨다(삼하.7:14; 시.89:32).

변론 21: 하늘에서 전쟁

-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찢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계.12:7-9).

통속적 해석:-

이 구절들은 하늘의 천사들 중에 반역적인 천사 하나가 생겨나, 그가 전능하시야웨 하나님께 대항하였다가 마귀(魔鬼)가 된 결과로 그와 그의 추종하는 천사들이

36 하나님과 죄악

하늘에서 땅(Earth)으로 쫓겨나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훼방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시사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는 것이다. 그후 그들은 지금 공중에 있으면서, 여러 형태로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해설:-

1. 이 학습에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은 이 구절을 타당하게 해석할 것이다. 천사들이 범죄할 수 없고 따라서 하늘에서 반역할 수 없다. 죄가 우리의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막.7:20-23), 이 구절, -그런 종류의 유일한 이 구절은 천사들이 범죄했다든가 또는 땅에서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는 그런 범죄한 천사들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그 뱀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면, 그것은 본래 그곳에 있던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 있던 실제의 뱀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창조하였다(창.1:24-25). 그 마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뱀 속에 들어갔다는 암시가 전혀 없다.

3. 성서에는 천사들이 범죄했다든가 또는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말이 없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 누구도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울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에 반대할 수 있는 자가 없도다”(신.33:29).

4. 그 극적 사건 후에(계.12:7-9),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10절)고 말하였다. 그 7-9절에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 이전에 세상 시작 때에 일어났다면, 어찌 사단의 타락 후에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담의 범죄 후에 “구원”과 하나님 나라로서 묘사될 수 없는 상태, - 인류는 죄의 종의 슬픈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마귀, 참소하던 자의 땅으로의 추방을 기뻐하는 것이 있다. 그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사람에게 죄와 재앙의 시작이라면, 어찌 기쁨이 있겠는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고 비유적인 것으로, 권세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사.14:12; 렘.51:53; 애.2:1; 마.11:23). 이 구절은 비유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아담의 범죄 전에 일어난 것이라든가 또는 인간의 타락 이전에 일어난 것이라면, 사람들이 존재하지 아니했는데, 그 마귀가 어떻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할 수 있겠는가?

5. 이 모든 것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다는 지적이 어디도 없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계.1:1과 그 4:1에 있다. -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것을 묘사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계시록을 주었을 때부터, 곧 그 1세기 후에 일어날 것들을 예언한 것이다. 누구

하나님과 죄악 37

든지 그 말씀의 내용을 알고자 하는 자는 이 논증만이 그것을(계.12장의 사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문제의 해답은 역시 마귀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것을 어찌하여 성서 맨 마지막 까지 보전했다가 동일한 사건으로 계시하느냐 하는 것이다.

6. “큰 용(龍)”그 “옛 뱀”(계.12:9)은 “일곱 머리와 열뿔을 가지고 있었다”(12:3).그러므로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뱀이 아니다.“그 옛뱀”이라고 불리운 것은 그 뱀과 같이 거짓말 하는 자라는 뜻에서,에덴에 있던 뱀의 특성을 가졌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그와 유사하게 “사망의 쏘는 것은 죄라”(고전.15:56)고 하였지만,문자 그대로의 뱀을 사망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그 뱀이 죄와 관련되었으므로 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7. 마귀는 땅으로 내어쫓겨나,“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 크게 분내고”있었다(12절).만일 마귀가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다면,그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인간을 괴롭힐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그러나 그것은 오래 동안이 아니고 다만 “잠깐 동안” 사정 없이 파괴하였다.

8. 아담 이전에는 세상에 아무도 없었을 터인데,그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은 천하를 피일 수 있었는가?”(9절).

9. 그 4절에는 그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떨어뜨렸다고 말하고 있다.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그리고 계.12장을 그 통속적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그 용의 크기는 거대한 것으로 우주(또는 태양계)의 3분의 1이 그 꼬리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유성(遊星)인 지구가 이 거대한 피조물을 그 안에 담기에는 충분치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별이 지구보다 크다.어떻게 그 별들의 3분의 1을 지구 위에 담겠는가? 그별들의 3분의 1은 약 백만 조(兆)에 이른다고 추측한다. 그 용의 꼬리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 예언을 말한 때가 A.D.1세기 후반이므로,이 모든 것은 그 후에 일어나며,또는 일어날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10. 계시록 12장에 있는 것들과 그 전체 예언에 대한 이 견해와 기타 여러 견해는 문자 그대로의 성취로 해석할 수가 없다.우리가 이미 말한바,이것은 “지시된(signified,-sign, 또는 상징으로 지시한 것,- 계.1:1) 메시지인 것이다.계시록 12장의 문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그것은 계.12:1의 그 “큰 이적의” 후속적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11. 그 마귀가 땅에 있을 때에 행한 것을 읽어보면,사람들을 범죄케 한다는 기록이 없다. 그 12절-16가까지에는 마귀가 내려온 땅에서 분쟁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이것은 통속적 해석에 상반되는 것이다.

38 하나님과 죄악

12. 이 구절이 하늘에서 문자 그대로 싸움이 있었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인지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그 “하늘”이라고 말한 것이 문자 그대로의 하늘인지 또는 비유적 하늘인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찌기 그 “하늘”은 권세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계시록은 이처럼 상징적으로 씌어진 서적이므로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의미가 통하는 것이다.

그 1절의 여자는 “해를 입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 여자와 같이 하늘에 매달려 있는 이 천체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녀는 문자 그대로 해를 입고, 또는 지구보다 큰 별들을 문자 그대로 머리에 얹고 있을 수가 없다.

그 3절에는 또 다른 징조, 하늘에 붉은 용이 나타난다. 이 하늘은 일반적으로 문자 그대로의 하늘이라고 하는데, 그 하늘이 1절에서는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어떻게 그런 문자 그대로의 하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 4절에는 그 용이 하늘의 3분의 1의 별들을 땅으로 던졌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 별들과 지구의 크기를 알고 있으므로,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별들, 또는 하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세워지는 것이다(단.2:44; 마.5:5). 그 별들이 이 땅에 떨어져서 이 지구가 파괴된다면, 그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하늘에” 있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5절)고 하였다. 그 여자가 이미 하늘에 있었는데, 왜 그 아들은 “하늘에 올라가야” 하는 것인가?. “하늘이” 비유적 표현이니므로, 그녀 또한 땅에 있는 어떤 상징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광야로 도망갔다”(6절)고 하였다. 만일 그 여자가 문자 그대로의 하늘에 있었다면, 이것은 하늘에 있는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여자가 비유적 하늘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과, 또는 비유적인 땅의 광야에 도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더 적절할 것이다.

그 7절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라고 하였다. 계시록 12장의 “하늘에” 관한 다른 모든 참고가 비유적이라고 하였으므로, 이것 역시 비유적 하늘에 있었던 전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문자 그대로의 하늘에는 반역이든가 또는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마.6:10; 시.5:4,5; 합.1:13), 이것은 바로 그 경우인 것이다. 그 일반의 통속 해설은 악한 천사들을 지옥에 가두어 두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하늘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문자 그대로의 천사들이 아니다.

본 저자는 때때로 그 마귀에 관한 통속적 생각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한다. “당신의 해석을 성구와 일치하게, 마귀에 관한 성서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대답은 너무나 모순되어 있다. 그 통속적 논의에 따르면, 그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하나님과 죄악 39

- a) 마귀는 하늘에 있다가 에덴 동산으로 추방된 천사이었다. 그는 창세기 1장에서 땅에 추방된 것이다.
- b) 그는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혼인하였다고 추정한다.
- c) 욥의 때에 그는 하늘과 땅을 모두 왕래하였다고 하였다.
- d) 이사야의 때에 그는 땅으로 떨어졌다고 한다(사.14장).
- e) 스가리아 서에는 그가 다시 하늘에 있다(3장).
- f) 마태 복음서에는 그가 땅에 있었다(4장). “세상 임금의 쫓겨나리라”는 것에 일반적 견해는, 예수께서 죽었을 때에 “그가 쫓겨난 것이다”.
- g) 마귀가 “쫓겨나리라”(계.12장)고 한 그에 관한 예언이 있다.
- h) 그 마귀는 “결박되어 있다”(계.20장), 그러나 유다서 6절에 관한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그와 그의 천사들은 창세기에 이미 결박되어 있었다. 만일 그가 “영원한 결박으로 묶여 있다면”, 어찌하여 그를 다시 결박하겠는가?(계.20장).

이 모든 것에서, 그 마귀가 여러번 땅에 떨어진 후에도 아직 하늘에 있다는 것으로 묘사된 것을 생각하면, 그가 범죄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그 일반적 견해는 사실일 수 없는 것이 확실하다. 그 “하늘”과 그 “땅”은 비유적 의미의 것들로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시한 해설:-

1. 이 장을 완전하게 해설하려는 것은 우리가 제시한 주석들의 범위 밖에 있다. 이 구절들의 완전한 설명은 문맥에서 그것들을 알기 위하여 계시록 전권의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2. 하늘의 싸움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권세의 자리 다툼을 말하는 것으로, 두 그룹의 세력이 서로의 추종자들, 또는 사자들, 그들 간에 있었던 것이다. 그 마귀와 사단은 로마제국 또는 유대제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가리킨 것을 기억하라.
3. 그 마귀(魔鬼)- 용(龍)은 “그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다”(3절)는 것을 보아 어떤 정치 세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이 용에 관한 해설이 있다(계.17:9-10):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즉 이 짐승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그 계속될 그 왕들 중의 하나는 “잠시 동안” 통치할 것이며, 그 왕은 잠시 동안이지만 그 마귀-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계.12:12).

40 하나님과 죄악

학습 6 : 학습 문제와 해답

1. 우리에게 문제들과 시련들은 누가 일으키는가?
 - a) 하나님
 - b) 우연히 일어난다
 - c) 사단이라고 하는 범죄한 존재물
 - d) 귀신이라고 하는 죄 있는 존재들
2. 우리를 범죄하게 하려는 그 유혹은 무엇이 일으키는가?
 - a) 우리의 인간 본성
 - b) 하나님
 - c) 악한 영
 - d) 사단이라고 하는 죄의 존재
3. “마귀”란 낱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a) 죄
 - b) 뱀
 - c) 중상하는 자
 - d) 루시퍼
4. “사단” 이란 낱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a) 죄인
 - b) 짐승
 - c) 대적자
 - d) 귀신의 왕
5. 그 “사단”이라는 낱말을 선한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가?

6. “사단”과 “마귀”는 비유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7. 신약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들은” 무엇으로 알고 있는가?
 - a) 범죄한 천사들
 - b) 질병
 - c) 질병에 대한 당시의 관용어,
 - d) 영물들
8.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